

								인		연									
																	의	천	득
	지	난		사	월		출	천	에		가	려	고		하	다	가		뜻
가	고		말	았	다	。		나	는		성	심		여	자		대	학	에
가	보	고		칠	었	다	。		그		학	교	에		어	느		가	을
학	기	,	매	주		한		번	씩		출	강	한		일	이		있	다
힘	드	는		출	강	을		한		학	기		하	게		된		것	은



。

,

주		수	녀	님	과		김		수	녀	님	이		내		침	에		오
친		것	에		대	한		예	의	도		있	었	지	만		나	에	게
는		사	연	이		있	었	다	.										
	수	침		년		천		내	가		열	일	곱		되	던		분	,
나	는		취	음		등	경	(	東	京	)	에		간		일	이		있
다	.		어	편		분	의		스	개	로		사	회	교	육	가		미
우	라	[	三	浦	]		천	생		택	에		우	숙	을		하	게	
되	었	다	.		기	바	쿠		기	로	가	네	[	芝	區	白	金	]	에
있	는		그		침	에	는		주	인		내	외	와		어	린		떨
세		척	구	가		살	고		있	었	다	.		하	녀	도		서	생

No 3

도		없	었	다	.		는	이		예	쁘	고		웃	는		얼	글	을	
하	는		아	사	코	[ 朝子 ]	는		치	음	부	러		나	를					
오	빠	갈	이		따	랐	다	.		아	침	에		낳	았	다	고		아	
사	코	라	는		이	름	을		지	어		주	었	다	고		하	였	다	.
그		침		플	에	는		큰		나	꾸	들	이		있	었	고		일	
년	초		꽃	도		맡	았	다	.		내	가		간		이	틀	날		
아	침	,	아	사	코	는			‘	스	위	트	피	이	’	를		따	다	가
꽃	병	에		담	아		내	가		쓰	게		된		책	상		의	에	
놓	아		주	었	다	.			‘	스	위	트	피	이	’	는		아	사	코
갈	이		어	리	고		키	여	을		꽃	이	라	고		생	각	하	였	



다	.																		
	성	심	(	聖	心	)		여	학	원		소	학	교		일	학	년	인
아	사	코	는		어	느		토	요	일		오	후		나	와		갈	이
저	희		학	교	까	지		산	보	를		갔	었	다	.		우	치	원
복	터		학	복	까	지		있	는		카	틀	릭		교	육		기	관
으	로		우	명	한		이		여	학	원	은		시	내	에		있	으
면	서		은		복	장	까	지		가	지	고		있	었	다	.		아
사	코	는		자	기		신	발	장	을		열	고		교	칠	에	서	
신	는		하	안		은	등	화	를		보	여		주	었	다	.		
	내	가		등	경	을		떠	나	던		날		아	침	,	아	사	코

는	내	복	을	안	고	내	뺨	에	입	을	맞	추							
고	,	제	가	쓰	던	작	은	손	수	건	과	제	가	끼					
던		작	은	반	지	를		이	별	의	선	불	로	주	었	다	。		
열	에	서		보	고	있	던	선	생		복	인	은	웃	으	면			
서		“	한		십		년		지	나	면		중	은	상	대	가		
될		거	예	요	。”		하	였	다	。		나	는		열	글	이	쓰	
거	위	지	는		것	을		느	꼈	다	。		나	는		아	사	코	에
게		안	델	센	의		등	화	책	을		주	었	다	。				
	그		후		십		년	이		지	나	고		삼	사		년	이	
러		지	났	다	。		그		등	안		나	는		극	민	학	교	

일	학	년		갈	은		예	뵈		여	자	아	이	를		보	면		아	
사	코		생	각	을		하	였	다	.		내	가		두		번	째		
등	경	에		갔	던		것	도		사	월	이	었	다	.		등	경	역	
가	까	은		데		여	관	을		청	하	고		죽	시		미	우	라	
선	생		택	을		찾	아	갔	다	.		아	사	코	는		어	느	릿	
형	을	하	고		세	련	되	어		보	이	는		영	양	(	令嬢	)		
이		되	어		있	었	다	.		그		침		마	당	에		피	어	
있	는		부	련	꽃	과		갈	이	.		그	때		그	는		성	침	
여	학	교		영	을	과		삼	학	년	이	었	다	.		나	는		춤	
서	먹	서	먹	했	으	나	,		아	사	코	는		나	와	의		재	회	를

기	배	하	는		것		갈	았	다	。		아	빠	지	,	어	머	니	가
가	꿈		내		말	을		해	서		나	의		큰	재	를		기	억
하	고		있	었	나		보	다	。										
	그	날	도		토	요	일	이	었	다	。		저	녁		먹	기		천
에		갈	이		산	책	을		나	갔	다	。		그	리	고		계	획
하	지		않	은		발	걸	음	은		성	킴		여	학	원		쪽	으
로		움	겨	졌	다	。		캠	퍼	스	를		두	루		거	닐	다	가
들	아	을		우	렵	,	나	는		아	사	코		신	발	장	은		어
리		있	느	나	고		플	어		보	았	다	。		그	는		우	순
말	인	가		하	고		나	를		쳐	다	보	다	가	,	교	실	에	는

구	두	를		벗	지		않	고		그	냥		들	어	간	다	고		하
였	다	.		그	리	고	는		갑	자	기		뛰	어	가	서		그	날
잇	어	버	리	고		교	실	에		두	고		은		우	산	을		가
지	고		왔	다	.		지	금	도		나	는		여	자		우	산	을
불		때	면		연	두	색	이		고	왔	던		그		우	산	을	
연	상	한	다	.		<	췌	부	르	의		우	산	>	이	라	는		영
화	를		내	가		그	렇	게		중	아	한		것	도		아	사	코
의		우	산		때	를	인	가		한	다	.		아	사	코	와		나
는		밤		늦	게	까	지		를	학		이	야	기	를		나	누	고
가	벼	은		악	수	를		하	고		헤	어	졌	다	.		새	로	



출	판	된		버	지	니	아		을	프	의		스	컬		<	세	월	>
에		대	해	서	도		이	야	기	한		것		갈	다	.			
	그		후		또		침	여		년	이		지	났	다	.		그	
동	안		제	2	차		세	계		대	전	이		있	었	고		우	리
나	라	가		해	방	이		되	고		또		한	극		전	쟁	이	
있	었	다	.		나	는		어	찌	다		아	사	코		생	각	을	
하	곤		했	다	.		결	혼	은		하	였	을		것	이	요	,	전
쟁		통	에		어	찌		되	지	나		않	았	나	,	남	편	이	
전	사	하	지	나		않	았	나		하	고		별	별		생	각	을	
다		하	였	다	.		19	54	년		최	음		미	극		가	던	

길	에		나	는		등	경	에		들	리		미	우	라		선	생	
택	을		찾	아	갔	다	.		뜻	밖	에		그		등	네	가		고
스	란	히		그	대	로		남	아		있	었	다	.		그	리	고	
미	우	라		선	생	네	는		아	직	도		그		침	에		살	고
있	었	다	.		선	생		내	외	분	은		흥	분	된		얼	글	로
나	를		맞	이	하	였	다	.		그	리	고		아	사	코	는		천
쟁	이		끝	난		후		백	아	러		사	령	부	에	서		번	역
일	을		하	고		있	다	가	,	거	기	서		만	난		일	분	인
2	세	와		결	혼	을		하	고		따	로		나	서		산	다	는
것	이	었	다	.		아	사	코	가		천	쟁		미	망	인	이		되

지		않	은		것	이		다	행	이	었	다	.		그	러	나		2
세	와		결	혼	하	였	다	는		것	은		마	음	에		결	렸	다
만	나	고		쉴	다	고		그	랬	더	니		어	머	니	가		아	사
코	의		침	으	로		안	내	해		주	었	다	.					
	뽀	죽		지	붕	에		뽀	죽		창	글	들	이		있	는		작
은		침	이	었	다	.		이	침	여		년	전		내	가		아	사
코	에	게		글		등	화	책		결	장	에		있	는		침	도	
이	런		침	이	었	다	.		“	아	,	이	뽀		침	!		우	리
이	람	에		이	런		침	에	서		갈	이		살	아	요	.”		아
사	코	의		어	린		북	소	리	가		지	금	도		들	린	다	.

	침		년	쯤		미	리		천	쟁	이		나	고		그	만	큼	
일	찍		한	극	이		특	립	되	었	더	라	면		아	사	코	의	
말	대	로		우	리	는		갈	은		침	에	서		살		수		있
게		되	었	을	지	도		보	른	다	。		뽀	죽		지	붕	에	
뽀	죽		창	븐	들	이		있	는		침	이		아	니	라	도	,	이
런		부	질	없	는		생	각	이		스	치	고		지	나	갔	다	。
	그		침	에		들	어	서	자		마	주	친		것	은		백	합
갈	이		시	들	어	가	는		아	사	코	의		얼	글	이	었	다	。
<	세	월	>	이	란		소	철		이	야	기	를		한		지		침
년	이		더		지	났	었	다	。		그	러	나		그	는		아	직

칭	칭	하	여	야		할		줄	은		나	이	다	.		남	편	은	
내	가		상	상	한		것	과		갈	이		일	분		사	람	도	
아	니	고	,	이	극		사	람	도		아	닌	,	그	리	고		친	주
금		장	교	라	는		것	을		뵈	내	는		것		갈	은		사
나	이	였	다	.		아	사	코	와		나	는		절	을		몇		번
씩		하	고		악	수	도		없	이		헤	어	졌	다	.			
	그	리	위	하	는	데	도		한		번		만	나	고	는		붓	
만	나	게		되	기	도		하	고	,	일	생	을		붓		잇	으	면
서	도		아	니		만	나	고		살	기	도		한	다	.		아	사
코	와		나	는		세		번		만	났	다	.		세		번	째	는

